

에도시대의 구시로

에도시대(1603~1867 년) 동안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은 봉건 영주 마쓰마에(松前) 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쓰마에 씨는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와의 독점적 교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스리’라고 불리던 구시로 강 하구 지역에는 아이누 마을이 있었습니다. ‘구스리’는 ‘건너는 길’이나 ‘목’을 뜻하는 아이누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마쓰마에 씨는 ‘구스리’를 이 지역의 아이누와 교역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쓰마에 씨의 가신들이 아이누와 직접 교역을 했지만,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교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스리’ 마을은 발전하여 구시로 마을이 되었고, 홋카이도 동부의 어업, 교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말까지 청어, 연어의 어획량과 다시마 수확이 늘어나면서 도호쿠 지방에서 이 지방으로 오는 어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구시로는 북일본과 오호츠크해, 쿠릴열도를 잇는 주요 항구가 되었습니다.